예배 및 모임안내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둠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15	11. 22	11. 29
대 표 기 도	장래황 형제	윤미경 자매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장래황 형제	윤미경 자매	정해욱 형제

교회소식

11월 축복 인사 : 선을 구하며 생명을 누립시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북부지역 청년 연합 찬양제 - 11월 14일(토) 오후 3시 순복교회(강사 이상호 목사)
4. 등록 - 김경석 형제께서 등록해주셨습니다(음대 성악 전공)
5. 나눔의 시간 - 이윤선 성도님 조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	

2026-45 2026년 11월 08일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브레멘 한민교회 -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상우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1 : 1 - 2(구p 1275) (Amos 1:1~ 2)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세상의 왕, 하나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세상의 왕,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불의를 보고만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1.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의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강대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폭력과 불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변 민족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존중하고, 정직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뿐 아니라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힘만으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남을 판단하기 전 나를 먼저 살피는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브레멘한민교회
Bremen Hanmin Church